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양 회

광운대학교

김 금 미†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학습지원 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 행동을 측정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총 240부의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부모 200부, 자녀 225부를 분석에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학습지원 행동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위요인별로 볼 때, 학습 환경 가꾸기 요인, 학업 정보제공 요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학업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부모 학습지원행동의 효과와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학업자기효능감, 학업정보제공, 학습환경

* 본 원고는 이양회(2012)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금미, 성균관대학교, Tel : 010-3266-1280, E-mail : imttokki@hanmail.net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제 1의 교육열’이라 할 만큼 높은 교육열을 가졌다고 한다(이종각, 2003).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자녀들의 조기 해외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의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학업부분에 있어서 높은 목표성취를 기대 받거나 강요당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부모들의 대리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바람직한 양육의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학업 성취기대로 자녀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학습에 대한 관여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태도를 형성시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결핍된 자녀로 성장시키는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윤미선, 2006).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높은 교육열은 부모와 자녀사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자와 가정 교육자 차원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지원 행동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노명숙, 2009). 이러한 현실에서 자녀들의 발달단계상 많은 부분의 학습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학령기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가운데 아이의 성적향상을 위해 공부목표와 성과를 함께 검토하고, 목표 설정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공부와 진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형태의 행동을 통해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연수, 2007). 또한 선행연구들 가운데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최형성, 2002), 부모의 올바른 학습지원 행동을 통해 자녀의 학업에 대한 성취정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모교육 관련 연구(김연수,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박영옥, 2008), 그리고 직접 자녀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통해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의 연구(권순영, 2007)가 있다. 그 외에도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한신애, 2010)가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업자기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학업 관련 갈등을 줄이고, 부모들의 역할만족도를 높이면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사이에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이 매개하는지를 실제로 검증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전 단계로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송현정, 1998).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입장에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양육태도를 받아들이는 자녀 자신의 여러 요인 및 심리적 과정 때문에 그들 부모의 실제 태도와 자녀에 의해 지각된 태도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된다(박지홍, 1984).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한 쪽에 집중하여 연구함으로써 ‘지각된’ 태도를 연구하게 되면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Bandura(1982, 1997. 최형성, 2002에서 재인용)는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으로 조직능력과 실행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효능감이란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 하는 생성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Bandura(1982, 1997. 최형성, 2002에서 재인용)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준비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미래는 사전에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에 대한 기대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았다(최형성, 2002).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효능감

(parenting self-efficacy)¹⁾이라는 개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마음으로 보았고,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김미옥, 2011에서 재인용),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애정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업성취도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효능감이 낮은 부모의 자녀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잘해나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옥, 2011).

또한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고 언급하였다. 신용주와 김혜수(2003)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특징은 첫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임하고, 둘째, 생활과 학습에 있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부모의 경험이 양육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근원으로 작용하고, 셋째, 양육효능감은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이자 발달 과업인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넷째, 효율적인 부모

1) parenting self-efficacy을 연구자에 따라 ‘양육효능감’, ‘부모효능감’이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역할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여 자녀를 위해 즉각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태형(2002)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Mondell과 Tyler(1981)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문제해결 상황과 놀이상황을 관찰하여 부모의 지각된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의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김미옥, 2011에서 재인용). 또한 김현미와 도현심(2004)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부모가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향상을 돕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기이론 중 하나는 학업 자기효능감 이론이다. 다양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예언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한 학업 자기효능감 이론은 학습상황에 관련된 수행 및 성취수준에 중요하게 직/간접적인 예측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김효순, 2003. 김연수, 2007 재인용).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과제선택,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의 양과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정도,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수행 여부 등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2007).

구체적으로 학업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모종의 판단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선호 등의 하위요인이 포함된다(김아영, 2001).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를 적용한다(sherer 1982. 김아영, 2001에서 재인용).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1993). 또한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Bandura, 1986). 그리고 과제수준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한다(Bandura, 1988; Latham & Locke, 1991).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Bandura, 1977). 또한 김아영과 박인영(2002)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간의 상관이 .76으로 높았으나 학업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양난미,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볼 때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형성 및 발달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영옥, 2008). 따라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자녀가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부모의 필수적인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자녀에게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녀의 행동에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연구(Coopersmith, 1967)가 있다.

한편 좋은 학습수행점수는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다(이수민 2011). 좋은 학습수행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형성되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우희정, 1992).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으로 인한 교육적 관여는 인지적 학업성취도 자체보다는 자녀의 학습 동기나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이숙자, 2007).

Bandura(1977)는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맥락에서 학업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면, 자녀의 학업포부가 부모의 학업포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자녀의 학업포부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를 위해 부모의 포부수준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학업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형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녀는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영옥(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

할수록 전반적인 학업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성취압력(과잉기대)은 자녀의 자신감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는 학습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므로 부모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바른 학습습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남경인, 2010).

박영신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대해 매우 높은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는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명숙, 2009).

한편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은 자녀의 학업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행동으로(김민수, 2006), 자녀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 학교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학습활동을 조장하는 가정환경, 학업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간의 활동을 포함한다(변용수, 김경근, 2006). 임은미(1998)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관련하여 '부모행동'을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적인 규칙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향상 격려, 학업 정보 제공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은 자녀의 자아효능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아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노명숙, 2009). 즉 부모가 긍정적 학습지원 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자아효능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은식(2003)은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높고, 그 정도에 있어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으며,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부모의 가정중심 및 학교중심 학습지원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재현(1994)은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는 자녀들은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며 오랫동안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홍영주(2011)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아질수록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학습관여가 촉진되었다.

한편 노명숙(2009)은 주로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을 높이기위해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어떠한 지 실태를 파악하고, 모 대상의 학습지원행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자녀의 자아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나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변인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의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습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평가 결과에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은 학습지원 행동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높이기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1개 초등학교 4-6학년 부모(240명)와 자녀(240명)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자녀용 검사지를 배포하였고, 부모용 검사는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집으로 가져가서 검사를 한 후 다시 밀봉하여 회수하였다. 부모용 검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 자녀용 검사는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임의 표집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10문항 이상 동일한 번호로 표기한 경우와 답안지의 1/2을 누락한 부모 40부와 자녀 15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부모 총 200부, 자녀 총 225부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부모-자녀의 응답이 매치된 자료는 187부였다.

연구대상의 부모 설문지 응답자는 어머니 166명(87.0%), 아버지 22명(11.5%), 기타 3명

(1.5%)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어머니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자녀응답자는 남 118명(52.9%), 여 105명(47.1%)로 남학생의 분포가 더 많았다.

측정도구

양육효능감 척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부모의 양육효능감척도는 5점 척도의 37문항으로 전반적 양육효능감(Cronbach's $\alpha = .9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Cronbach's $\alpha = .75$), 의사소통 능력(Cronbach's $\alpha = .86$), 학습지도능력(Cronbach's $\alpha = .84$), 훈육능력(Cronbach's $\alpha = .74$)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척도를 본 연구에서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원래 검사와 같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못하였다.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원래 연구 방법에 준하여, 공통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스크리 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며 요인 회전 방법으로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자료에서는 요인 1~3, 즉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학습지도 능력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두 개의 요인에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이 다수 섞여 있으며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에 근거하여 공통성이 0.4 이하인 문항으로 제외하고, 신뢰도와 전체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스크리 검사와 누적분산 비율을 고려하여 총 세 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62.15%이고, 각 요인의 명칭은 문항

의 내용과 원래 요인의 명칭을 참고하여 각각 '구체적인 양육효능감'(문항 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학습지도능력'(문항 예: 나는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훈육능력'(문항 예: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으로 명명하였다. 이 문항들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구체적인 양육효능감 .89, 학습지도능력 .83, 훈육능력 .70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이다. 각 문항은 1~5점 척도이고,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지원행동 척도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명숙(2009)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자기보고식 학습지원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원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검사'(김종덕, 2001)에 기초한 것으로, 이 검사의 문항들이 윤미선(2006)에 의해 중학생 수준의 어휘로 수정, 보완 되었고, 이 검사를 다시 부모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원래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부모의 선택권 부여(6문항), 민주규칙 제공(6문항), 걱정성과 추구(6문항), 학업향상 격려(6문항), 학업 정보제공(6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적용했으며, 노명숙(2009)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문항이 개정되고, 요인분석이 생략된 채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하였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 및 원래 척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네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가능한 한 제외하고, 해석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네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이는 전체 변량의 63.35%를 설명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인은 민주적인 학습 선택권 부여 6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에 관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학업향상 격려 6문항(문항 예: 나는 자녀의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한다(R)), 학습환경 가꾸기 3문항(문항 예: 나는 자녀의 성적이 잘 못 나오거나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준다), 학업정보제공(문항 예: 나는 공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준다)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민주적인 학습선택권 부여 .87, 학업향상 격려 .84, 학습환경 가꾸기 .72, 학업정보제공 .72, 및 전체 .8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1~5점 척도이고, 척도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업자기효능감 척도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정효(2003)가 수정한 김아영과 박인영(1999)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3 문항이었고 하정효(200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정효(2003)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이나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고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공통되게 부하되는 문항들을 제거하여 과제난이도선호 6문항(문항 예: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자기조절효능감 7문항(문항 예: 나는 수업시간 중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자신감 4문항(문항 예: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으로 총 17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별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과제난이도 선호 .77 자기조절효능감 .76, 자신감 .60, 전체 .83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학업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학업자기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과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의 하위변인들 가운데, 부모는 자신의 훈육능력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17점으로 가장 높게 평점했고, 학업정보제공은 평균을 조금 넘는 3.10점으로 가장 낮게 평점했다.

다음으로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63, p<.01$).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지원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과 학습지원행동 하위요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의 구체적인 양육효능감은 민주적인 학습선택권 부여와 학습환경 가꾸기, 학업정보제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습지도능력의 경우 학업향상격려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훈육능력은 학업향상격려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학습지원행동 가운데 학업향상격려요인은 양육효능감과 상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효능감 전체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들간에 상관이 매우 높고 그 하위개념들간의 상관은 중간 정도여서 하위요인들과 양육효능감 전체 요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학업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관계($r=.17, p<.05$)를 보였는데, 이를 볼 때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자기효능감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지원행동은 학업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r=.23, p<.01$),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아지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이 긍정정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의 하위요인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민주적인 학습선택권 부여는 과제난이도 선호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학업향상격려는 학업자기효능감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습환경 가꾸기는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정

표 1. 부모의 양육효능감, 학습지원행동,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구체적인양육효능감	1												
2 학습지도능력	.56**	1											
3 훈육능력	.55**	.45**	1										
4 양육효능감전체	.84**	.85**	.78**	1									
5 민주적학습선택권	.53**	.37**	.29**	.49**	1								
6 학업향상격려	.03	.06	.13	.08	.15*	1							
7 학습환경가꾸기	.52**	.42**	.48**	.57**	.42**	.14	1						
8 학업정보제공	.43**	.58**	.23**	.52**	.35**	-.01	.38**	1					
9 학습지원행동 전체	.58**	.55**	.42**	.63**	.73**	.52**	.71**	.67**	1				
10 과제난이도	.16**	.23**	.14	.22**	.18*	.06	.22**	.27**	.28**	1			
11 자기조절효능감	.15*	.12**	.17*	.18*	.11	.04	.17**	.16**	.19**	.48**	1		
12 자신감	-.02	-.01	.02	-.01	-.02	-.02	.08	.07	.04	.20**	.19**	1	
13 학업자기효능감전체	.12	.16*	.14	.17*	.13	.04	.22**	.23**	.23**	.79**	.74**	.60**	1
M	3.69	3.51	4.17	3.79	3.50	3.70	3.93	3.10	3.56	2.62	2.90	3.11	2.88
SD	.57	.72	.56	.51	.68	.75	.62	.74	.46	.73	.59	.67	.48

* $p<.05$ ** $p<.01$

보제공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 요인을 비롯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도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표 1 참조).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주장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지원행동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양육효능감($\beta=.63, p<.001$)이 학습지원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2) 양육효능감이 학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eta=.17, p<.05$). 마지막으로 3)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beta=.17$ 에서 $\beta=.07$ 로 줄어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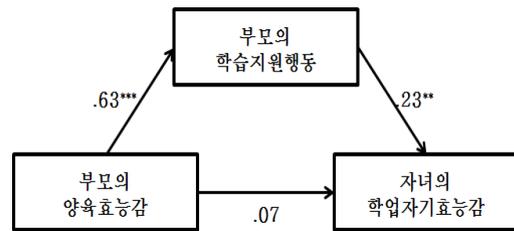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지원행동의 전체 매개효과 검증

고 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서($t=.69, p>.05$) 매개효과가 유의하며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지원행동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습지원행동의 하위요인인 민주적 학습선택권, 학업향상격려, 학습환경가꾸기, 학업정보제공 가운데 민주적 학습선택권과 학업향상격려는 매개효과가 밝혀지지 않았고, 나타난 두 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습환경 가꾸기에 대해서는 1) 양육효능감($\beta=.57, p<.001$)과 학습환경 가꾸기의 관계는 유의했다. 또한 2)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의 상관이 유의했다($\beta=.17, p<.05$). 마지막으로 3) 양육효능감과 학습환경 가꾸기를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

표 2.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지원행동의 매개모형

	변인	R^2	B	β	t
β_1	양육효능감 → 학습지원행동	.39	.56	.63	11.01***
	학습지원행동 → 학업자기효능감	.05	.24	.23	3.21**
β_2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3	.16	.17	2.35*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5	.06	.07	.69
β_3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5	.18	.18	1.87*
	학습지원행동 → 학업자기효능감				

* $p<.10$ * $p<.05$ ** $p<.01$ *** $p<.001$

표 3.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환경 가꾸기의 매개모형

	변인	R^2	B	β	t
β_1	양육효능감 → 학습환경 가꾸기	.32	.69	.57	9.59***
	학습환경 가꾸기 → 학업자기효능감	.22	.17	.22	3.00**
β_2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3	.16	.17	2.35*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5	.10	.11	1.20
β_3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5	.11	.15	1.66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beta=.17$ 에서 $\beta=.11$ 로 유의하지않게 감소하였으므로 ($t=1.20, p>.05$)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학습지원행동의 하위요인인 학업정보제공에 대해서는 1) 양육효능감($\beta=.52, p<.001$)이 학업정보제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2) 양육효능감이 학업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17, p<.05$). 마지막으로 3) 양육효능감과 학업정보제공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beta=.17$ 에서 $\beta=.07$ 로 감소하였고, 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서 ($t=.82, p>.05$)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개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240명의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척도를 재검증하였다. 양육효능감 및 학업자기효능감, 학습지원행동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양육효능감 척도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원래 요인과 같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표 4. 양육효능감과 학업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업정보제공의 매개모형

	변인	R^2	B	β	t
β_1	양육효능감 → 학업정보제공	.27	.76	.52	8.36***
	학업정보제공 → 학업자기효능감	.05	.14	.23	3.16**
β_2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3	.16	.17	2.35*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6	.07	.07	.82
β_3	양육효능감 → 학업자기효능감	.06	.12	.20	2.30*

* $p < .05$ ** $p < .01$ *** $p < .001$

다. 이에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문항과 요인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62.15%이고, 각 요인의 명칭은 문항의 내용과 원래 요인의 명칭을 참고하여 각각 ‘구체적인 양육효능감’,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으로 명명하였고,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습지원행동 척도는 부모의 학습관련행태 검사(김종덕, 2001)에 기초한 것으로 윤미선(2006)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고, 이 검사를 부모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새로운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지 않고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한 채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개 요인 총 18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이는 전체 변량의 63.35%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은 민주적인 학습선택권 부여, 학업향상 격려, 학습환경 가꾸기, 학업정보제공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정효(2003)가 수정한 김아영과 박인영(1999)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및 자신감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해 요인분석과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완전매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학습지원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과 학습지원행동을 동시에 회귀시켰을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에서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경로가 유의하

지 않아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논문을 비교하면 노명숙(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학습지원행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학습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부모의 학습지원행동 변인을 탐색하고,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평가한 후 수정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초등학생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발달 단계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학습 수준과 학습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령기인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검사를 실시하였고, 척도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문항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구체적인 학령기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지원 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경우 양육효능감 하위변인인 자신의 훈육능력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17점으로 높게 평점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는 다르게 자신이 훈육능력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적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고 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학습지원행동 하위변인인 자신의 학업정보제공에 대해서 5점 만점에 평균을 조금 넘는 3.10점으로 가장 낮게 평점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에 부모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학습의 습관을 형성하는 학령기(4학년~6학년) 자녀들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각각 유치원생 부모와 자녀,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부모와 자녀, 중학생 부모와 자녀, 고등학생 부모와 자녀와 같이 대상을 세분화해서 효과를 비교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치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정정애, 2010). 이러한 측면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동의 양육에서 보이는 차이를 보면서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집이 1개 초등학교에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이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한 연구의 결과가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변인들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

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학업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학습지원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 매개한 후에 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하위요인 가운데 유의한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으로 나뉘어서, 이에 대해 모형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추가로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네째, 학습지원행동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특히, 학업향상격려요인은 학습지원행동전체와의 상관이 .52($p < .01$)로 유의하지만,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전체(.08, *n.s.*) 및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 전체(.04, *n.s.*)와 관계에서 다른 요인들과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하위요인은 학업향상격려와 관련하여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들이 학업향상을 격려하는 것이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학업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되면서, 부모의 격려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효능감이 향상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순영 (2007). 초등학생 학습기술향상을 위한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 국상담학회지, 8(2), 737-750.
- 김미옥 (2011). 부모코칭프로그램이 부모의 분노,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수 (2006). 자기결정성 및 부모의 학습지원 행동과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아영, 박인영 (1999).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평가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 김아영 (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 김연수 (2007).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효순 (2003). 사고양식,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경인 (2010). 부모 학습기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명숙 (2009). 학습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학령기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9(4), 89-107.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17(2), 271-288.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 박영옥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변용수, 김경근 (2006).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교육종단 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3, 387-4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지홍 (1984). 자녀의 부모양육태도 지각과 자아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현정 (1998).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가 장애아 형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용주, 김혜수 (2003). 안드라고지의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부모효능감: ANDRAGOGY TODAY, 6(1). 한국성인교육학회.
- 양난미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이수민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숙자 (2007). 학교폭력 진단 프로그램 활용 방안(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한 '학교폭력관리진단'을 찾아서). 상담과 지도, 42, 233-235.
- 이종각 (2003). 교육열 올바르게 보기. 서울: 원미

- 사.
- 이재현 (1994). 사교육비의 실태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 (1992).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5-25.
- 윤미선 (2006). 중학생의 부모 학습관여 지각과 교과흥미 및 교과성적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8(2), 139-155.
- 정정애 (2010).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91-1202.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하정효 (2003). ICT활용 수업유형이 영어 학습태도, 학업 성취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 (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주 (2011).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1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 review*, 18(1), 47-8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Lanhan,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212-247.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ori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1차원고접수 : 2013. 10. 30.
심사통과접수 : 2013. 12. 18.
최종원고접수 : 2013. 12. 27.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Lee, Yang-Hee

Gwangwoon University

Kim, Keum-m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To achieve this, this study measured parenting self-efficacy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in 4-6 grade of on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and their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by conducting survey. Among 240 distributed questionnaires, 200 from parents, 225 from children were used for analysis and it was verified the parenting supports of learning's complet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It was also confirmed by the sub-factor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management factors and the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factors. These results imply that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is a variable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level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to improve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It also has an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meaning to show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parenting supports of learning in improving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The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information, Learning environment